로버트 배노이, 대선지자, 제9강

이사야 11:11-12:6;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11:11-16

좋습니다. 11장의 나머지 부분인 11-16절은 제가 지난 분기에 언급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다. 나는 이 구절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천년왕국 초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즉, 이 장의 첫 번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어렵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 그리고 시날과 하맛과 바다 해안에서 왔습니다.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는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지리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날아갈 것이다. 그들이 동방에서 그들을 함께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얹을 것이요 암몬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강한 바람으로 강 위로 손을 흔들어 일곱 강을 쳐서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 남은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되리라.”

예언적 담화의 본질 - 전 세계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이제 나는 예언적 담화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앞서 이 예언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즉, 그 성격에 관한 한 그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거기에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와 같은 예언을 읽을 때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스왈트의 14페이지와 15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그의 의견이 있습니다. 1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옆에 “이 구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296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Oswalt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장에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539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깃발이 될 수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만국을 위하여

기를 세우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돌아가면 메시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칼빈(Calvin)과 같은 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까? 확실히 신자들은 10절에서 세계 각지에서 메시아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이 부분은 넓은 나라들과 관련하여 그 부분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2:2-4을 연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주요 초점은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요점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유대 민족의 최종적인 대집합에 관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현대의 시온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과 미래에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11절에서 “그가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 등에서 인도함을 받아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라” 고 말하는 곳에서 오스왈트는 그 개념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즉, 땅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분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스왈트는 그 목적이 더 비유적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을 모든 곳에서 회복시키시리로다 그는 그것을 주요 아이디어로 받아들입니다. 15페이지 맨

위의 12절에 대해 이 구절은 앞의 구절들이 산문으로 말한 것을 시적 형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귀환하는 자들은 온 땅에서 올 것이며, 그 내용은 288페이지에 있고 다음 문단은 13절에 있습니다. 14, 28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George Adam Smith)는 강제 복종의 그림이 위대한 “평화의 선지자”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폄하했습니다. 14-15장에서 “그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쪽으로; 그들은 동쪽에서 그들을 약탈할 것이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등... 조지 아담 스미스는 강제 복종의 이 그림이 위대한 평화의 선지자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 선지자에게 “전쟁 중단에 대한 상호 합의”라는 19세기의 관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국가 간의 상호 합의의 결과인 평화에 대한 관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평화는 압도적인 주권자에 대한 상호 복종의 결과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만이 11:6-9에서 읽을 수 있는 평화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목적. 그러므로 이것은 이사야가 여기서 투영하고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방법으로 그는 그들이 다윗에게 알았던 것과 유사한 내적, 외적 안전과 안전이 있을 때가 다가오지만 다윗보다 더 큰 분이 이를 보장해 주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스왈트는 천년왕국 시대 이전이나 초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때 일어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밀 영(A-Mil Young)은 이것을 복음 전파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제 이를 당신이 인용한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EJ Young과 비교해 보십시오. EJ Young은 이 전체 구절을 현재 복음 전파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입니다. 19 페이지 중간의 두 번째 문단은 Young의 396에서 나온 것이며 그는 12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시대에 교회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선포할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은 “그가 만국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리니”, 곧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의 398페이지 다음 문단 13절은, “에브라임의 투기는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지리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역사적 시대의 두 왕국 사이의 긴장은 제거될 것입니다. 영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적, 지역적, 지역적 구별이 폐지될 것이며, 이 구절에 사용된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연합과 자리가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 중 하나” - 398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날아갈 것이요. 동방에서 그들을 함께 약탈할 것이며 그들이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리라. 그러면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기에 믿음의 참된 연합이 있고 세상의 적개심에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연합은 자신을 숨기거나 침해하지 않고, 공격을 예상하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공격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적들은 멸망되어야 하며,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단결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즉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날아갑니다.” - 398페이지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원수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은 연합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선교사 파송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활발하고 신실하게 선포하는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20페이지.

“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시된 영광스러운 희망은 사막의 유목민 아랍인들을 문자 그대로 약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리는 복된 임무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아들이 탈취를 당하여 거짓 부와 소유를 빼앗기고 대신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갖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며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의 흩어진 자를 땅 사방에서 모으시며 다시 손을 펴사 남은 자를 회복하시리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세상의 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께 포로로 만들기 위해 손을 뻗는 일로 구성될 것입니다. . 이사야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에 관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환에 대한 생각이 이 예언의 기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스왈트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부분적 성취의 가능성으로 본다

이제, 나는 오스왈트가 그것이 여기서 일어날 일의 초기 조짐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대부분은 아직 특징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즉, 1948년에 일어난 일과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에 대한 암시는 아직은 더욱 완전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스왈트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페이지야? “주요 초점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유대 민족의 최종 대집합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시온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시온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완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는 1948년이 적어도 가능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Young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러한 범주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요, Oswalt는 “비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그는 비유적이라는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고 말하고 나서 “

앗수르와 애굽에서, 그리고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돌아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거기에 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장소들이 지구의 네 모퉁이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돌아오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특정 지리적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Young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리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사악함과 악에 반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바노이의 경고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6일 전쟁에서 그렇게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바다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1948년이나 1967년에 일어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일수록 1948년에 이 나라가 재건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세기에 걸쳐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을 말살시키거나 분쇄하고 전멸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하고, 히브리어를 재구성하고, 문화를 재건하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 모압인, 블레셋인, 암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흩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구성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의 중요성을 최소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에 대한 많은 천년왕국 해석은 이스라엘이 거의 사라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려해야 할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면 -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 신명기 32장이 그것입니다; 30절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한즉 너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나라 중에서 그것을 기억하리라” 너를 몰아낸 후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와 네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할지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모든 나라에서 너를 모아 돌이키실 것이라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6절).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네 원수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글쎄요, 거기에는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부분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대인 전도에 대해 들은 바에 따르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크다고 하고 귀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서구 세계의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부흥이 일어나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로의 더 큰 귀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의 인상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일하신 후에 다시 유대 민족과 함께 일하시는 건가요?

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과 함께 일하신 다음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자기들이 거절하던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 순서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유대 민족의 대대적인 전환처럼 보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2장 - 찬양의 노래

좋아요, 12장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장차 일어날 이 위대한 일들을 볼 때, 이것은 위대한 장입니다. 간략한 내용: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심이로다 그 사람도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 날에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시온의 주민아 외쳐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크심이니라”

보세요, 이 부분의 끝 부분에는 주님께서 성취하실 놀라운 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인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임마누엘서 7-12장의 끝입니다.

이사야 13-23장 외국에 대한 심판 이제 책의 구조로 돌아가십시오. 1-6장은
 심판 축복, 심판 축복, 심판 축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7-12 임마누엘서, 초기 부분에서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인 13-23장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조를 논의했을
 때를 기억한다면 13-23장은 외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13장은 바로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의 경고”

그리고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것은 바로 23장까지 이어집니다. 15장에는 모압, 17장은 다메섹, 18장은 에티오피아, 19장은 이집트 등... 외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24-27, 그것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작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다가오는 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과 그의 백성을 위한 축복을 묘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나는 이사야 24-27장 부분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은 임마누엘서와 평행하다(이사야 7-12장) 나는 28-35장으로 넘어가고 싶다.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은 여러 면에서 임마누엘서와 비슷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금 논의 중이었습시다. 역사적 배경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7-12와 같은 시간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2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임마누엘서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7장에서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28장에 이르면 예언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메시지는 그 땅의 귀족들, 즉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7장은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왕이 아닌 귀족, 땅의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읽어 보면 문맥을 통해 일부 진술과 함께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전달되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족들의 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으로 가서 이것이 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결정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수로-에브라임의 위협에서 그들이 앗수르로 눈을 돌려 이 장의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장의 앞 부분에 이르면 이사야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앗시리아와의 동맹을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모스처럼 북왕국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의 초점을 북왕국에 맞추고자 했을 때 외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촌 국가들에게 왔고, 그 다음에는 유다에 왔고, 그리고 마침내-그가 청문회를 얻은 후-그는 북왕국을 정죄하는 그의 메시지의 초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28:1ff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질책 음, 여기서 이사야는 유다로부터 시작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초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의 영광은 포도주에 잡힌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시드는 꽃이로다. 보라, 여호와께는 강하고 강한 이가 있으니 그가 우박의 폭풍과 파괴적인 폭풍 같고

큰 물이 범람하는 것 같이 그 손으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광의 영광이 시드는 꽃이 되어 여름이 되기 전의 이른 열매 같으리로다 보는 사람이 아직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먹는도다 .”

그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하여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의 시드는 꽃” 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는 북왕국 백성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시드는 꽃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아직 함락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원전 721년 이전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유다의 귀족들은 의심할 바 없이 사마리아가 멸망될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예언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북왕국을 공격하는 한 그들은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는 강하고 강한 자가 있으니 우박 폭풍 같고 파괴하는 폭풍 같으며 큰 물이 범람함 같으니 [북왕국]을 무너뜨리리라” 고 했습니다. 술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광의 영광도 사마리아에 대하여 보리라 보라 쇠잔하는 꽃이 되어 땅 앞의 익은 열매 같으리로다 여름 이라 보는 자는 보는

자의 손에 있어도 먹느니라.”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28:5-6 남은 백성에게 영광이신 주님 그리고 5절과 6절: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미래의 때에 대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때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남은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5절에 보면,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재판석에 앉으신 이에게 공의의 영이 되시리라” 고 했습니다. 전쟁을 성문으로 향하게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시리라.” 도시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심판을 주시는 주님께서 장차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멸망될 것이며 그 후에는 도시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남은 백성을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미래의 때에 관심이 끌릴 것입니다.

이사야 28:7-8 에브라임처럼 악한 술취한 유다 7절과 8절에 이르면 7절과 생각이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범 죄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히브리어로는 *wegam elleh*, “그리고 이들도” 로 읽어야 하며, “그리고 이들도” 로 읽어야 합니다. NIV에 따르면 “와인은 비틀거리고 맥주는 릴을 감는다”고 합니다. 「신 영어 성서」에는 “이 사람들도

포도주에 중독되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명확합니다. “이것들”입니다. 그 의미는 이사야가 북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남쪽의 귀족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의. 그는 자기 앞에 잔치를 벌이는 귀족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희는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과 같이 악하다.” - “그러나 이 사람들도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여 길에서 벗어났느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하였도다 그들은 포도주에 삼켜졌습니다. 그들은 독한 술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 그들은 환상에 실수를 범하고 판단할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강한 언어, 특히 그가 이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종류의 잔치에 있을 때 : “너희 식탁에는 토한 것이 가득하며 너희는 유다의 술취한 자들이로다.”

이사야 28:9-10 귀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언어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0절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9-10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귀족들이 말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그는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하게 할 것인가? 젖을 떼고 가슴에서 빼낸 자들아? 왜냐하면 교훈은 교훈 위에, 교훈 위에 교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는 이 귀족들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의미는 그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의 윤리적인 “말씀에 줄, 교훈에 교훈, 교훈에 교훈” 으로 그들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풍자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ki sav lesav, sav lesav, kav lekav, kav lekav* 등.

예루살렘 성경이 이것을 번역하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소 의역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이것이 특히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기들이 방금 젖을 떼었나요? 방금 가슴에서 나온 아기들? With his,”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은 그것을 아기의 횡설수설처럼

번역하지도 않습니다. “ki sav lesav, sav lesav, kav lekav, kav lekav.” 마치 “네 애기 말투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비꼬는 것 같다. 예루살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의 설교를 올바른 가치에 따라 선택한 단어로 흉내내며 어린아이의 웅알이를 회상한다. 만약 그 단어를 번역하자면 ‘주문에 따라 주문, 주문에 따라 주문’ 이라고 읽힐 것입니다 . 규칙에 대한 규칙; 규칙 하나; 여기 조금; New Bible Commentary는 “10절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조소하는 ‘어찌고 저찌고’ [사람들이 말하는]와 거의 같은 징글이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규칙 위에 규칙, 규칙 위에 규칙, 줄 위에 규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JB 필립스는 “우리는 그냥 젓을 떼었나요? 법은 법이다, 법은 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가? 규칙은 규칙이고 규칙은 규칙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더듬는 입술과 외국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 즉, 하나님의 뜻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당신은 앓수르로부터 그것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8:11 하나님께서 외국의 입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이것을

조롱하고 이사야의 설교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듬는 입술로”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가 다른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NIV는 이를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는 “그렇다면 좋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비웃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훈에 교훈을,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횡설수설처럼 분명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하나님은 앓수르 군대의
 공격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지껄이는
 소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

이사야 28:12-13 하나님께서 유다를 꾸짖으시다 12절과 13절에서 책망이
계속 됩니다 . 그리고 이것은 상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 킹제임스 성경은 “이전에는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완전성과 연속되는 vav입니다. “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sav lesav, sav

lesav 가 반복됩니다 .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할 것입니다.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는 그들이 가서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고 울무에 걸리고 잡힐까 함이니라.” 책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앓수르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안식과 새 힘을 얻을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말하는 앓수르 침략자들을 통하여 그가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말할 수 없는 언어.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sav lesa v, kav lekav* 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에서 픽업해야겠습니다.

Naomi Toavs 작성, 2009년 Gordon College
 편집자: 칼리 가이먼 (Carly Geiman)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